

<장애이해교육 안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현재 각 학교와 학급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의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Mirae 

1. 장애의 유형

1) 시각장애란?

- 시력, 시야, 광각, 색각, 망막, 안구 운동 등과 같이 시각의 여러 기능 중에 어느 한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시각 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 장애 발병의 원인과 기능 손상의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보이는 범위와 정도가 다름.

2) 청각장애란?

- 사람의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 외이로부터 대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청각 경로가 있는데 이 중 어느 부위의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 듣기에 어려움이 있음.
- 청각기능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보청기와 같은 보장구, 구화, 필담, 수어 등의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함.

3) 지체장애란?

-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 등에 의해 신체 움직임을 담당하는 팔, 다리나 몸의 기능적 제약이나 손상으로 일상생활의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팔, 다리, 몸 등의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이 달라짐.

4) 자폐성 장애란?

- 소리나 냄새, 통증 등과 같은 몸의 감각에 대한 반응과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과 말의 패턴을 보이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개인마다 감각의 민감도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양상도 다양하지만 감각을 안정시켜주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2.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과 활동

교육부에서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유. 초. 중. 고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백일장, 장애이해 사진, 홍보영상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
| 1 |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 2 | 학교별 장애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소속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 |
| 3 | 시, 도교육청과 그 소속, 산하기관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3. 장애이해교육 최종 목표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
|---|---|
| 1 | 장애이해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함 |
| 2 |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학교분위기 조성함 |
| 3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함으로써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함 |

4. 장애 관련 기념일

| 장애유형 | 기념일 |
|------|--|
| 시각 | <p>[흰지팡이의 날]</p> <p>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 <p>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p> |
| | <p>[점자의 날]</p> <p>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p> |
| 지체 | <p>[지체장애인의 날]</p> <p>지체장애인들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 매년 11월 11일입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는 별도로, 지체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격려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정했습니다. 11월 11일을 택한 까닭은 숫자 '1'처럼 힘차게 일어서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백과)</p> |
| 자폐성 | <p>[세계자폐인의 날]</p> <p>매년 4월 2일에 전 세계에서 자폐 장애 인식 개선을 촉구도록 지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2007년 유엔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선언되었습니다.</p> <p>이 날은 자폐인들의 삶을 보다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자폐인들이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키백과)</p> |
| 청각 | <p>[한국수어의 날]</p> <p>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하며,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동등한 공식언어로 법제화되었습니다.</p> <p>2020년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사용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가 공식언어로 정해진 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여 '한국수어의 날'이 제정되었다. (다음백과)</p> |

5. 장애인에 대한 예절

| 장애유형 | 예절내용 |
|------|--|
| 시각 | <p>① 인사를 할 때 볼 수 있는 사람 쪽에서 먼저 말을 먼저 걸고 악수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키 등 여러 가지를 감지하고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시각 장애 정도가 다양하여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p> <p>② 방향이나 장소를 가르쳐 줄 때에는 좌우, 전후나 몇 걸음, 몇 미터 되는 곳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p> <p>③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흰 지팡이는 장애인의 눈이므로 그것을 잡아 끌거나 밀어서는 안됩니다.</p> |
| 지체 | <p>① 휠체어 이용자가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에 도와주어야 합니다.</p> <p>②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도록 합니다.</p> <p>③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받쳐 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p> |
| 자폐성 | <p>①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이야기 할 때 의사와 상관없이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낯선 장소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급하게 막아서기 보다는 자폐성 장애인이 진정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p> <p>②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설명을 해 줄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 실물이나 사진을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p> <p>자폐성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배려도 필요합니다</p> |
| 청각 | <p>① 듣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 장애의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p> <p>② 대화를 할 때에는 입 모양을 크게 하여 천천히 말하기(구화), 문장으로 쓰기(필담), 혹은 수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눈을 바라보고 표정을 살피며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p> <p>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p> <p>③ 청각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가져가거나 만지면 안됩니다.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습니다.</p> |

